

##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김호철 사령탑 '데뷔전 완패'  
IBK 새신 가시밭길 시작됐다이틀간 손발 맞추고 나선 흥국생명전 0-3  
새 용병 산타나 활용·하위권 탈출 과제로

18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올 시즌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IBK기업은행-흥국생명전의 관심은 온통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에게 쏠렸다. IBK기업은행은 세터 조송화의 무단이탈로 촉발된 기나긴 논란을 잠재우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 감독을 전격적으로 영입했다. 그가 처음 지휘봉을 잡고 코트에 나섰기에 팬들의 기대가 컸다.

7년 만에 V리그 무대로 돌아온 김 감독은 흥국생명전에 앞서 "배구인으로서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며 감독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여자팀을 처음 맡은 데 대해선 "배구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해보니 까 다르더라"고 밝혔다.

김 감독의 예상대로 경기는 쉽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흥국생명에 경기 내내 끌려 다녔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선수 산타나도 신통치 않았다. 겨우 7점에 공격 성공률 33.33%를 기록했다. IBK기업은행은 세트스코어 0-3으로 졌다. 최근 3연패다.

이날 김 감독은 트레이드마크였던 '호통'을 치지 않았다. 그 대신 선수들을 달래기 바빴다.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칠 때는 그냥 가벼운 웃음으로 넘겼다. 어이없는 실수에는 기본적 요소를 강조하며 먼저 '파이팅'을 외쳤다. 작전시간에도 질책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코멘트로 사기를 끌어올렸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 김 감독은 16일 오후 처음 선수들과 만나 훈련을 했다. 단 이틀간 손발을 맞추고 이날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 후 김 감독은 "여자배구와 남자배구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생각보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 좋다"고 말했다. 이어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건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은 코트에서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밖에서 격려해주는 게 전부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도로공사(23일·홈)~현대건설(26일·원정) 등 선두권 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어 31일 다시 도로공사와 원정경기를 펼친다. 연말까지 호락호락한 경기가 없다. 객관적 전력상 이들 강팀을 상대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감독의 가시밭길이 시작됐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NBA 코로나 방역 준비상... 브루클린 선수 10명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프로농구(NBA)에 준비상이 걸렸다. 슈퍼스타 케빈 듀란트를 비롯한 브루클린 네츠 소속 선수 10명이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브루클린의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 등 총 10명이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격리돼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들이 모두 빠진 브루클린은 이날 올랜도에 93-100으로 패했다. 듀란트와 어빙은 물론 제임스 하든, 폴 밀샵, 라마커스 엘드리지 등 주축선수들이 모두 빠진 탓에 정상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들 중 어빙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개막전부터 결장해왔다. 브루클린이 속한 뉴욕주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체육관 입장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브루클린은 18일 어빙을 향후 원정경기에

는 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어빙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출전시킬 계획이었지만, 최근 악화된 팀 내 상황 때문에 일단 원정경기에는 내세우기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올랜도전은 홈경기라 어빙은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출전할 수 없었다. 다만 전날 7명이던 코로나19 관련 격리자가 이날은 10명까지 늘어나는 등 브루클린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NBA는 최근 팀 내 확진자가 불어난 시카고 불스의 2경기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리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경기를 치른 18일에는 16개 팀에서 총 31명의 선수가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출전하지 못했다. NBA의 코로나19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받는 선수는 24시간 이내에 2차례 음성 결과를 받거나 10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팀에 합류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